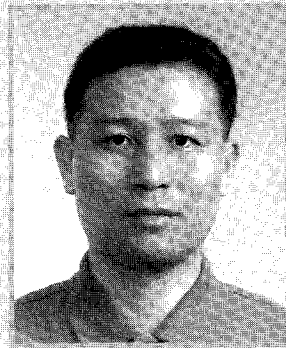


중추이동 전후 사양관리(18~22주)

- 2월 닭의 생리적 발달
- 3월 병아리 입추준비
- 4월 육추기 관리 (0~7일)
- 5월 육성기 관리 (2~4주)
- 6월 육성기 관리 (5~18주)
- 7월 중추이동 전후 사양관리(18~22주)
- 8월 수탈 선발 및 합사 비율 (18~22주)
- 9월 육성기 점등 및 산란기 첫 점등지극 시점
- 10월 산란 5%~산란피크까지 사양관리
- 11월 산란기 중요 사양관리
- 12월 40주 이후 수탈 스파이킹 방법



인 경 섭
한국원종 대표이사

1. 목 표

체성숙 및 성성숙의 균일한 발달을 통해 생산성 극대화에 있다.

2. 암탉 사양관리

18~22주 시기는 시산시점, 난중, 산란피크, 종란 생산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사료량을 잘 증가시켜 권장 주간 증체량에 도달하도록 관리해야 한다. 닭의 체성숙 및 성성숙에 시점에 영양소 공급이 불충분하면 균일도 저하 및 생산성에 큰 영향을

주기 때문에 관리자는 사료교체시점에(중추사료, 산란전사료, 종계사료) 체중 및 주간증체 변화를 잘 관찰해야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.

3. 18~22주 체성숙 및 성성숙 발달이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

18주령 이후에 체성숙 및 성성숙의 발달 저하는 내부장기(수란관 및 난포)에 영향을 주어 아래와 같은 문제점 발생한다.

- 1) 시산시점이 최소 2주 정도 지연된다.
- 2) 초기 난중이 불량하여 불합격란 비율이 높아진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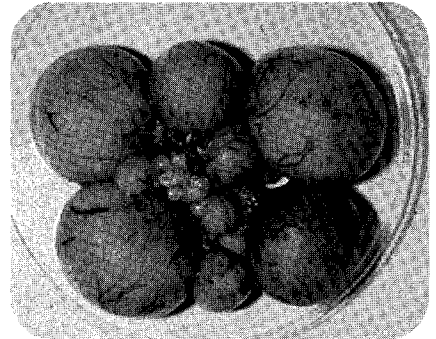
- 3) 난포발육이 정상계군보다 미달되어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.
- 4) 산란증후군 증가로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.
- 5) 낮은 산란피크와 수정을 저하

주의: 체성숙 및 성성숙 발달이 표준보다 미달시 사료급여량을 급격히 증가시키지 말고 표준 주간 증체량에 도달하도록 사료량을 조절 후 점등자극 시점을 2~3주 지연시키면 생산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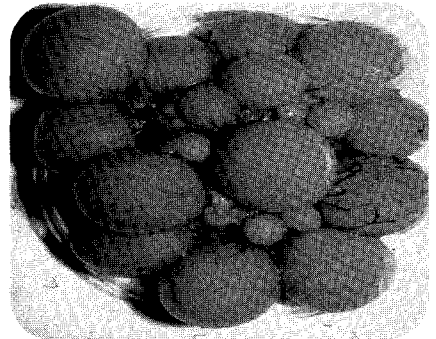
4. 18~22주 체성숙 및 성성숙 발달이 과다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

18주령 이후에 체성숙 및 성성숙의 발달 과다한 경우에 과대난황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 발생한다.

- 1) 시산시점이 1~2주 빠르다.
- 2) 과대난황으로 난중이 작다.
- 3) 쌍란이 증가 및 폐사율이 높아진다.
- 4) 산란크러치가 불규칙적이고 복강내 산란을 많이 한다.
- 5) 유지에너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료요구량 증가로 생산비가 올라간다.
- 6) 산란피크 저하 및 종란을 감소
- 7) 수정율 감소 특히 45주 이후에 급격히 저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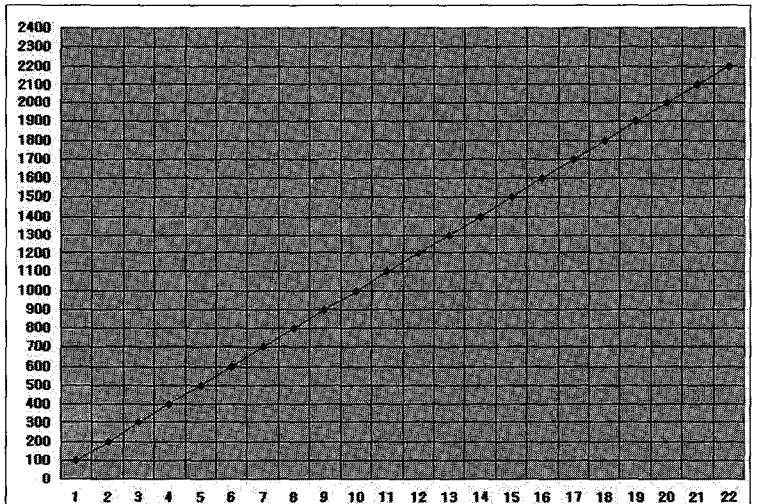


정상적인 난황 모습(난황숫자가 7~8개)



과대 난황 모습(난황숫자가 12개 이상)

<그림1> 정상적인 계군과 과체중 계군의 난황 모습



<도표1> 육성사에서 성계사로 이동 후 체중관리 - 육성사에서 성계사로 보통18주에 이동하는데 이때 사양관리 잘못된 생산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수다.

5. 중추이동 전 이동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한다

중계 농장에서 병아리 입추와 중추이동 작업이 중요한 일이다.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농장 간 정보 공유 및 각자 할 일에 대하여 교육을 시키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. 다음은 중추이동시 준비 사항이다.

- 1) 어리장으로 이동시 사전에 박스 수량을 체크
- 2) 어리장 바닥에 깔 종이나 마대를 준비
- 3) 포획, 상차, 하차 인원을 체크하여 준비
- 4) 이동수수를 정확하게 파악한다.
- 5) 어리장 박스에 투입수수를 결정한다.(암탉, 수탉)
- 6) 중추이동인원은 정시에 농장에 도착하도록 준비
- 7) 안전사고 주의 교육을 시킨다.(특히 열사)
- 8) 중추운반차량에서 신속하게 하차해야 한다.(특히 여름철)
- 9) 총괄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서 준비
- 10) 이동 일주일전에 육성농장은 사료재고 파악

표1. 홍길동농장 중추운반계획서(예)

차량번호	육성농장	성계농장	성계농장	육성농장	암 수	박스	이동	입추동
1234	출발시간	도착시간	출발시간	도착시간	구분	수량	수수	
홍길동	06:00	06:30	07:00	07:30	암탉	162	1,620	1동

6. 중추이동 전·후 사양관리 점검사항

닭이 성계사로 이동 후 사양관리 문제점을 가산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.

1) 점검사항

- (1) 육성사에서 이동전에 구충을 실시해야 한다.
- (2) 성계사 급이면적, 급수면적/수당, 평당 사육수수 계산하여 입추수수를 결정한다.
- (3) 육성사 급수기가 종형급수기이고 성계사 급수기가 니플일 경우에 물을 못 먹은 개체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급이기에 다 물을 급수해야 한다.(2~3일정도)
- (4) 슬랫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닭들이 슬랫이 무서워서 올라가지 못하는 개체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.
- (5) 중추이동시 수탉 먼저 이동하고 다음에 암탉을 이동한다.
- (6) 닭이 급체가 발생하는지 잘 관찰 한다.
- (7) 성계사는 중추이동 후에는 관리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.
- (8) 이동 후 야간에 호흡기 체크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.
- (9) 사료반입 장치 및 환기 콘트롤 장치를 사전에 점검한다.
- (10) 이동 후 사료급여량을 잘 결정해야 체중 미달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.
- (11) 시산 시점에 추가적으로 IB+ND 생독 백신을 실시한다.

7. 결론

18주령은 닭에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주는(오일접종, 중추이동, 추백리검사, 사료 교체 등) 시점이고 내부 장기 발달도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. **양계**

